

#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집중 논의 예정

## 보전녹지는 지켜야 하지만 자연녹지는 개발해야 '주장'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 대부도 지역의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개발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변경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부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역의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요구해왔다. 현재 대부도의 인구는 약 9천300여 명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인구를 5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대부도 내 일부 지역에 한해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태 보전의 필요성이 큰 보존녹지는 철저히 개발을 제한하되, 상대적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자연녹지 지역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일부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주거시설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도의 지역 개발은 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공시설 및 생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도는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센터 합격자 결정

### 8월 23일 개소식, 9월부터 영재교육센터 본격 운영

안산시는 지난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영재교육센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오는 23일 공식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양대 에리카(ERICA) 영재교육센터는 지난 5월, 안산시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한양대학교가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치에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지난 2일 필기시험과 9일 심층 면접을 거쳐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54명의 최종합격자(과학영재교육센터 30명, 로봇·AI영재교육센터 24명)들은 서류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3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영재교육센터 개소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된다. 9월부터는 과학영재교육센터와 로봇·AI영재교육센터 등



안산시는 지난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영재교육센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오는 23일 공식 개소한다.

윤성용 기자

두 개의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은 "새롭게 문을 연 영재교육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안산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고려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선발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과학 분야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불합리한 규제 바뀌요”

### 오는 9월 19일까지 40일간

안산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40일간 '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법 ▲조례 ▲규칙 ▲지침 ▲행정지도 ▲인허가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

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전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언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은 안산시민이거나 관내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 '채소식'란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tmddud@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031-481-20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제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 공모의 경우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30만 원) ▲장려상 2명(각 10만 원) 등 총 6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안

산시장 명의의 표창도 함께 수여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 과제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실제 규제 개선 과제로 반영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40일간의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규제혁신으로 안산시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장기 체납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3천만 원 전액 징수

### 재산세 324건, 2개월 만에 전액 징수...“공평과세 실현”

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

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용방건설산업(주)

- 토목사업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파일 항타 공사업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 수도권대기환경청,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안산소재 환경청에서 13일 5개업체 참여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3일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축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하며(가나다순),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등을 말하며, 끓는점이 낮아 대기 중 쉽게 증발하고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일조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13일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량이 많아 오존 생성이 활발해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협약 참여 사업장은 오존 집중관리기간(5월~8월) 동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배출농도 강화,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개별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장 중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주) 인천공장은 총탄화수소 배출농도를 허가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SK인천석유화학㈜,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희성축매㈜는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를 선택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포

상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협약은 오존 저감을 위한 자율적 환경관리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분야별 오존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지역환경교육센터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 상반기 성과 점검 및 하반기 탄소중립 실천 강화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재단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2025년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열렸으며, 홍희관 위원장(재단 대표), 비롯한 위원 4명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환경교육 포털 유지관리와 환경부 우수환경프로그램 30회 운영(653명 참여) ▲학교 대상 탄소중립 환경교육 77학급(약 1,840명) 실시 ▲환경강사 28명 양성 ▲기업·특수교육 대상 맞춤형 교육 15회(384명 참여) ▲환경교육주간 대면·비대면 행사 운영 ▲자연환경해설사 양성(9명) 및 보수교육(22명) 등이 있다.

또한 안산시 환경기금을 활용한 대



안산환경재단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재단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2025년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행사업으로 ▲생태텃밭 교육 96회(2,130명) ▲숲체험 교육 36회(685명) ▲그린코딩 교육 4회(58명)를 추진했으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유아 대상 찾아가는 환경연극과 초등학생 숲 체험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다.

홍희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입추

가 지나 한결 선선해진 가운데 하반기에는 탄소중립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교육·정책·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지역환경교육센터는 2023년 3월 안산시로부터 지정받아 재단 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협력체계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안산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市, 제30회 양성평등주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 올해로 벌써 30회째 맞아

올해로 벌써 30회째를 맞이한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안산시가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안산시는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다음 달 2일 안산문화예술회관 달맞이극장에서 제3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작돼 2014년 법 개정을 거쳐 여성주간행사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양성평등주간 30주년을 기념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안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안산시 여성상 표창 ▲양성

평등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실천다짐 등의 기념식과 함께 안산시가 올해 시민의 실존을 거쳐 선정한 ‘성평등 10대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진행된 다.

이울러, 특별강연에는 방송인 겸 개그맨 김원호, 심진화 부부가 무대에 올라 ‘세상을 바꾸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다. 부부의 경험담을 재치 있

게 풀어내 양성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있는 포스터나 홍보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기념행사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 회의 개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2일 ‘청소년 중독예방 네트워크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단원보건소를 비롯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사육경찰서 ▲안산YMCA ▲안산시 청년센터 상

청소년꿈기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14곳이 참여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청소년 중독예방 사업 성과 공유 ▲기관별 청소년 관련 사업 동향 보고 ▲사업 관련 협조 및 연계 요청 ▲하반기 및 2026년 협업 제안 등이 논의됐다.

정사임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마약,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등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협의체 기관들과 공동으로 실질적인 중독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청소년 중독예방 네트워크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안산시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7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의 상권 실태를 고려해 ▲상권 환경 개선 ▲상권 홍보 콘텐츠 개발 ▲

받지 못했던 1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의 시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잦은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이불·의류·가구 등의 업종과 노후 상권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교체·설치 및 소화기를 교체·보급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권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에서

상생 기반 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모형 정책 사업이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 기구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I 유형 시군으로 선정돼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의 1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1단계 사업에는 총 5억 9천만 원(도비 2억 9천만 원, 시비 3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상인대학 참여 등이 어려워 지원

이민근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관내 상권 현황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반영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며 “뜻깊은 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안산시장 선거,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지역사회 변화의 기대감 확산

## 안산, 성평등 정치지형 선도 시의회 여성 의장도 배출

안산시에서 여성 시장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첫 여성시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산시는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 시장이 선출된 적이 없으며,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로도 시장직은 모두 남성 정

치인이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는 여성후보가 나설 경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당 공천 시 여성 비율 30% 이상 기준과 더불어, 일부 정당은 여성 후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한 정책 역량을 가진 여성 후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의 경우, 시의회 의장을 여성 의원이 맡은 경험이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역량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시장 후보로 여성 인사가 거론되는 상황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안산은 다양한 정책 수요와 복합적인 도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행정 경험과 섬세

한 정책 역량을 가진 여성 후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여성 후보의 등장이 현실화될 경우, 안산시는 수도권 대도시 중에서도 성평등 정치 지형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市와 간담회 개최

### 기획행정·문화복지 도시환경조치 12월 298회 임시회 앞두고 회기 안전 등 집중 협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2월 의회 각 상임위원장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관련 안전과 주요 현안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15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총 41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보고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시정소식지 제작·홍보비 제2회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소식지 발행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강화할 것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주문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해서는 소비쿠폰의 사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홍보와 집행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승격 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BI 제작 시 시민 공모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시 문화예술과 등 1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43건에 대해 의견을 나

눴다.

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노인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 방식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현장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논의된 와동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가 오는 12월 개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등 19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59건의 안전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안전과 호수공원 리뉴얼사업, 노후 가로수 수종갱신, 소규모 급수 불편 해소 사업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안건을 포함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도시관리 관련 조례 및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내용을 조례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원 여건 안에서 사안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보고를 정취하면서 예산편성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공무직위원회 상시 운영 · 법제화 필요성 한목소리!

## 박해철 의원, 국회 토론회서 차별 해소·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필요한 개선점도 이미 도출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장관의 의지도 확인됐다. 노동부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법의 허점이 만든 공무직 노동자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통일된 인사규정 부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 과거 한시적 운영 등 공무직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노-노 갈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민주당 공약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포함돼 있고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된 만큼 법제화 이후 위원회가 보수 체계와 임금 격차를 줄이며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 노사관계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은 기관별 처우 차이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설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임금 기준을 마련하면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형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기관별 임금 격차가 크며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인건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통합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함께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와장은 기준 인건비 집행률이 낮고 산정 방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관련 지침과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상시 운영, 차별 해소,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부

처 간 협력과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해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와 함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양문석 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특교세 8억 원 확보

## 준공업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3억, 용신교 정비사업 5억 등 총 8억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이 13일 안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본오동 준공업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용신교 정비사업 5억 원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

본오동 준공업지역은 인근 구역의 주차수급률이 6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며, 주·야간 주차공간 부족 및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좁은 골목의 불법주차장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특교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신교는 지난 1988년 준공되어 약 35년간 사용되어 온 구조물이다. ‘2025년 상반기 정밀 안전점검’결과, 바닥판 하부의 망상균열 및 백태의 심화, 교각부의 재료분리 현상, 교면 포장의 노후화 등 곳곳이 손상되어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 특교세 확보를 통해 용신교의 추가 손상 진행방지와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경기지방정원 조성 공사에 안산시민이 최우선 되어야”

### 안산 상록구 지역 정치권 경기도, 건설사 함께 간담회

경기도의회 김동규·김태희 의원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추진 과정에서 안산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에서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공사 도의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의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경기도 정원사업과(이정수 과장), 건설사와 시공사의 실무진(도화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등)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성공사에 인근 주민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며, “건설장비 사용과 같이 크고 작은 협력사도 안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장이 12월 각 상임위원장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위부터 차례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 “비만 오면 흙탕물”... 고랫부리 선착장 가는 길 주민들 “포장이라도 해달라” 아우성

## 주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대남로 아닌 고랫부리길 이용

안산시 대부남동 행낭곡 경로당 회원들이 고랫부리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포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남초등학교에서 고랫부리 선착장까지는 약 2.5km 정도 거리로, 대부남동 476-22 일대 펜션단지(해바다펜션 등)까지는 도로 포장에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 이후부터 선착장까지는 포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이고, 곳곳에 패인 구덩이는 물웅덩이로 변해 차량 운전이나 보행자 모두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펜션 손님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이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해당 도로는 ‘공유수면’에 해당돼 확장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남동 고랫부리길의 일부 모습으로 포장과 비포장이 섞여있고 비만 오면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주민들은 “확장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포장이라도 해주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얼마 전 해당 구간 일부가 포장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전체 구간 포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도로는 ‘아래동심길’과 ‘고랫부리길’이 만나는 지점이며, 대남로에서 갈라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유수면이라는 이유로 내비게이션에도 등록되지 않아 외지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펜션 이용객들은 내비게이션이 대남로를 통해 좁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펜션을 가도록 안내하고

있어 불만이 적지 않다.

주민들은 “확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도, 포장만이라도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역 관광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 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 안산시도 불법행위 3곳 적발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에 대상으로 집중 수

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 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



안산시A씨가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된 현장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횡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전문가 칼럼

## 국가 청사진 속 대부도의 길 주민과 함께 키우는 태양광발전소



김시경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 ‘여러 분과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35.1GW에서 78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송전망을 30% 이상 확충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HVDC)’를 개통한다. 2040년에는 서해안을 따라 U자형 해상 전력망을 완성하는 구상이다.

국가 계획의 핵심은 설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전략, 주민 참여형 모델, 제도·재정 지원을 통한 실행력 강화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마이크로그리드, 청정수소 산업벨트, 해상풍력 생태계 육성 등이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햇빛·바람연금’ 같은 이익 공유형 사업 모델은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비전은 대부도의 미래 구상과도 깊이 닿아 있다. 대부도협동조합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상태양광·해상풍

력·육상 태양광이 결합된 복합형 재생에너지 단지를 꿈꾸고 있다.

시화호와 인근 해역은 수상태양광에 적합하며, 서해안의 바람은 해상풍력의 경쟁력이다. 유휴 부지와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경제 자립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니다. 발전소의 이익이 주민 배당금, 마을 기금,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되돌아오는 참여·공유형 에너지 생태계다. 국정위가 강조한 제도와 모델을 현장에서 실현한다면, 대부도는 재생에너지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현실의 벽은 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송전망 확충도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환경 데이터 축적, 주민 협의, 이익 공유를 동시에 추진해 이 벽을 낮출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린 청사진은 전국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행에 달려 있다. 대부도협동조합은 국가 계획을 종이 위 계획이 아닌, 우리 대부도에서 자라는 현실로 만드는 길에 서 있다.

“에너지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부도에서 자란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며, 대부도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이 되는 이유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 “큐로 하나되는 안산” 김홍도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 15일 개막

“큐 하나로 전국이 하나로”  
당구 스포츠 축제,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15일 개최

안산시는 오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사흘간 와동체육관에서 '2025 안산 김홍도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안산시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생활체육 당구 동호인 800여 명

이 참가해 개인전, 스카치(복식),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리그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일정은 ▲15일(금) 개인전 예선으로 시작해 ▲16일(토) 스카치(복식) ▲17일(일) 단체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당구를 매개로 한 전국 동호인 간의 교류와 실력 향상의 장이자 안산시가 '당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을 찾아주신 당구 팬 여러분과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당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안산시가 스포츠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2025 전국대회 우승 기념 안산시 우드볼협회 자축대회’ 대성공



안산시우드볼협회는 지난 8월 9일 안산호수공원 우드볼경기장에서 '2025 전국대회 우승 기념 안산시우드볼협회 자축 기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뜨거운 폭염에도 열정적,  
시민 200여 명 참여 성황

안산시우드볼협회(회장 윤재상)는 지난 8월 9일 안산호수공원 우드볼경기장에서 \*‘2025 전국대회 우승 기념 안산시우드볼협회 자축 기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우드볼대회에서 올해 상반기 2회 종합우승을 달성한 협회가 이를 기념하고 회원 간 단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이 모여 열린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협회 주최·주관, ㈜한티엔에스 협찬, 회원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소속 각 클럽이 남·여 개인전에 출전해 상위 5위까지의 성적을 합산해 종합 순위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 우드볼의 저변 확대와 클럽 간 유대 강화, 협회의 통합 의지를 다졌다.

〈대회 결과〉  
남자 개인전: 1위 서정환(나이스), 2위 여일호(드림), 3위 이종학(라운), 4위 조현국(굿샷), 5위 황홍서(연리지)  
여자 개인전: 1위 이선희(한타로), 2위 유분애(한타로), 3위 노예래(한타로), 4위 이양순(나이스), 5위 유선자(연리지)  
종합 시상:

- 종합우승: 나이스클럽(550타, 동타 상황에서 팀전 최저타 우위)  
- 종합 2위: 드림클럽  
- 종합 3위: 연리지클럽(555타)  
- 특별상: 알바트로스 - 류재욱(드림) - 게이트인원 - 박옥주(나이스), 이복순(나이스), 심지숙(나온), 박영길(나온), 조인길(나온), 성상열(드림)

대회에 앞서 협회는 폭염과 장마 기간에도 클럽별 3~5시간씩 '경기 규정·점수 계산' 등 심판 교육을 실시해, 각 클럽이 자체 심판진을 구성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상 회장은 개회식에서 “불볕더위 속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우드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대한우드볼연맹 회장은 폐회식에서 “윤재상 회장과 임원, 회원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안산시 우드볼의 발전을 실감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우드볼협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드볼의 매력과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리는 한편, '건강한 안산시' 만들기 기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외국인주민 인도네시아공동체 근로자 배구대회 개최



10일 열린 안산인도네시아 공동체 배구대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지난 1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 200여명 참석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년 외국인주민 인도네시아공동체 근로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외국인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수단과 응원단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안산 ▲서울 ▲인천 ▲경산에서 총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각 팀은 토너먼트식 경기를 치르며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안산팀이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준우승은 경산팀이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주민은 “배구 경기를 하며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산시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덕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대회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안산 고든병원,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 설명회 개최



안산 고든병원이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척추·신경외과 특화 의료서비스와 국제환자 전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최첨단 척추·신경외과 수술  
원스톱 국제진료 서비스 제공”

안산 고든병원(병원장 황주민)이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척추·신경외과 특화 의료서비스와 국제환자 전담 시스템을 소개했다.

8일 고든병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몽골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병원 측은 ▲의료시설 견학 ▲전문 의료진 소개 ▲최소침습 로봇수술 시스템 시연 ▲국제 의료수가 안내 ▲입원·회복 프로그램 등을 차례로 선보이며 고든병원의 경쟁력을 알렸다. 황주민 병원장은 설명회에서 “고든 병원은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 국

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몽골 환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숙박, 통역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든병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몽골뿐만 아니라 동·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환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 청소년, 오스트리아·체코로 국제문화교류 떠난다

린츠시장과의 만남,  
청소년들과의 교류,  
세계적 미디어아트 축제  
9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2025 안산시청소년 국제문화교류·국제교류 미디어융합 공유학교」가 오는 9월 3일(수)부터 11일(목)까지 9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제교류단에는 안산시를 대

표하는 청소년 12명이 참가해 역사·문화·예술·과학이 어우러진 현장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사전워크숍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AI 활용 디지털 교육, 한국문화기행, 여행 안전 수칙 교육 등을 마치고 출발한다.

청소년들은 첫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카를교·프라하성·성비투스 대성당 ▲Charles University 캠퍼스 등을 탐방하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이후 오스트리아 린츠로 이동해 ▲린츠시장과의 만남 ▲VJF 청

소년기관 및 청소년들과의 교류 ▲린츠대성당 및 모차르트하우스 방문 ▲세계적 미디어아트 축제인 'Ars Electronica Festival' 참관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간다. 잘츠부르크와 할슈타트, 비엔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모차르트 생가 및 미라벨 궁전 ▲호프부르크 왕궁·국회 의사당·셴부른 궁전 등을 견학하며 예술·자연·역사 전반에 걸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김형기 관장은 “이번 국제교류는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문화 이해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단은 9월 11일 귀국하며, 활동 소식과 사진은 안산시청소년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삼계탕 밀키트 나눔 손길



단원구 고잔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밀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다. 박선주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안산도시개발(주) 후원으로 바르게

살기위원회 회원분들과 통장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였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함께하는 고잔동을 위해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고잔동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백운동 자율방재단, 라성사거리 생수 나눔 행사



단원구 백운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1일 라성사거리 일대에서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무더위 해소 생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시원한 생수 나눔과 함께 폭염 시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병만 백운동 자율방재단 대표는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염, 장마, 한파 등 계절별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자율방재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생수 나눔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폭염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본오3동 통장협의회, 4대 윤리 준수사항 다짐



상록구 본오3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2일 통장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4대 윤리 준수사항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서식에서는 신규 위촉 통장이 대표로 선창에 맞춰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청렴 선서를 낭독했으며, 48명의 통장은 굳은 의지를 담아 서명한 서약서를 등에 제출했다. 서약서에는 ▲청렴의무 ▲정보보안 ▲감질금지 ▲비밀유지의 4대 윤리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윤자 본오3동 통장협의회장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행정의 신뢰를 만들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청렴을 바탕으로 주민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통장은 행정현장의 얼굴이자 목소리인 만큼 청렴, 보안, 감질근절, 비밀유지를 철저히 실천해 주민 신뢰를 지키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부2동 지사협, 독거어르신에 삼계탕 나눔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말복을 맞아 관내 독거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독거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사협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지사협은 그동안 선부2동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삼계탕 전달은 해마다

펼쳐오는 봉사활동의 일원이다. 유병석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리다”며 “관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지사협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월피동 자율방재단, 얼음생수 나눔 캠페인 펼쳐



상록구 월피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1일 월피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사거리에서 얼음생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폭염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아직 30℃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산시 자율방재단(단장 설철희)에서 지원한 얼음생수 7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성환 월피동 자율방재단 동대표

는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원들과 함께 월피동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월피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동 주민자치회, 시원한 과일로 이웃사랑 전해



상록구 이동 주민자치회는 12일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과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 주민자치회 문화복지분과에서 진행한 이번 나눔에는 여름을 맞아 특별히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이동 주민자치회의 올해 자치사업 중 '반찬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의 나눔 행사가 계획됐으며 지난 6월 진행한 나눔 행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 연

말까지 2회의 나눔 행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오필선 이동 주민자치회장은 “나눔의 손길이 더 많은 이웃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도 함께 과일을 소분해 담으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주민 스스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격려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 안산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서 나눔 행사 수익금 기탁받아

‘푸른콩깍지 나눔 행사’를  
통한 수익금 309만 8,600원

안산시는 13일 안산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경희)로부터 ‘푸른콩깍지 나눔 행사’를 통한 수익금

309만 8,600원을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강화된 운영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 시설이다. 현재 관내 총 35개소가 선정돼 운

영되고 있다.  
안산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의 푸른콩깍지 나눔행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로 7화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

금을 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개최된 푸른콩깍지 나눔행사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도서 등을 기증받는 ‘아나바다 나눔장터’가 열렸으며, 에

코백 만들기 체험과 추억의 게임 등 다채로운 부스와 영유아들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다.  
김경희 회장은 “영유아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 보람찬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긍정적

인 마음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마음을 매년 전해주시는 안산시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 토지매매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3)미준공주택 11년. 대250평/건40평. 3억7000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 광고문의

## 032.880.9994



### 광고문의

## 032.880.9994



###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 민들레 사랑나눔 봉사단」영흥면 선재2리 말복 삼계탕 배식 봉사

## 지역 어르신 50명에게 대접

비영리 봉사단체인 인천'민들레 사랑나눔 봉사단'(회장 이종숙)은 말복을 맞아 영흥면 선재2리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손수 만들어 지역 어르신 50여명에게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민들레 사랑나눔 봉사단'은 2014년 민들레산악회를 모태로 결성된 인천 남동구 봉사단체로, 현재 9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매년 어르신 배식 봉사, 경로당 청소, 요양원 위로 공연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겨울에도 영흥면 선재2리 경로당에 방문해 겨울철 방한 조끼를 전달한 바 있으며, 당시 어르신들께 "다시 방문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여름에도 방



비영리 봉사단체인 인천'민들레 사랑나눔 봉사단'은 말복을 맞아 영흥면 선재2리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손수 만들어 지역 어르신 50여명에게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문하여 복달임 음식을 손수 만들어 제공했다.

이종숙 회장은 "작년 선재2리 경로당 봉사활동에서 어르신들과 했던 약

속을 지키고자 올해 여름에도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왔다"며,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선재2리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100세가

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봉사 소감을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웅진군보건소, 피서철 해수욕장 금연·절주 캠페인 실시

### 영흥면 심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 관광객 대상으로

웅진군은 지난 8월 8일 영흥면 심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수욕장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간접 피해가 쉽게 발생하는 장소로,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노출 위험이 높다. 이에 군은 흡연·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금연·절

주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금연지도원 2명이 함께 참여해 금연구역 안내를 비롯해 금연·절주 상식 퀴즈, 금연클리닉 운영, 음주 폐해 예방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군민 모두가 건강을 지키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금연·절주 실천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웅진군의의회, 제250회 원포인트 임시회 마무리



웅진군의의회는 지난 8월, 1일간 제25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임시회에서는 심의가 보류되었다.

이의명 의장은 "수고해주시는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보건소는 지난 8월 8일 영흥면 심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희재 기자

## 웅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납세 독려'

### 8일, 1일간 제250회 임시회

웅진군의의회(의장 이의명)는 지난 8월, 1일간 제25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웅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그리고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웅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각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웅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 시 우선 승선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웅진군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9,221건, 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31건, 2억 8천만 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웅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

인분)를 1만 1천 원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공방 010-4071-2797





# 김진경 의장,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에서 AI혁신으로 자치분권 디지털 의정 구현 강조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AI 비서 서비스 체계와 의정 현안분석 및 자료요구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2단계는 AI 의정플랫폼 지원체계 구축으로, 2027년까지 AI 어시스턴트 기반 통합 의정보털과 입법역량 강화 및 법령 정비 체계, 예산분석 및 추계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3단계는 2028년까지 AI 의정플랫폼 확산으로, 원격회의 및 전자결정 환경 구축, 시군의회 디지털 의정체계 지원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 콘퍼런스에서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추진현황, 지속가능한 AI 혁신, AI Agent와 함께하는 일상, AI 의회 스마트 영상 회의록 등 AI 분야 최신 기술 및 공공기관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들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AI가 사회와 경제 전반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지방의회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AI 혁신으로 민생중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AI로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개방적이고 유

연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김동연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갈등 해소 후속 조치

"계속 재배하시죠!"

최근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쟁입찰 및 보류 사태에 불안해하는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장주의 불안함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다.

김동연 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해소에 나선 데 이어 친환경 급식체계와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김 지사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는

중 하나다. 작년 9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21개 시군 농어민 310명을 선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경영분석, 1:1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소득 증대 기반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공공조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한우협회서울인천경기도지회, G마크축산물학교급식협의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함께했다.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농산물 운영현황 및 생산체계를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재해구호금 1천만원 전달 받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전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

구호금을 각각 1천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은 김진경 의장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가평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구호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적심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해 주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신속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전국 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는 것처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뭉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김진경(사진 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고 있다.

김태창 기자

##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관 준비 본격 돌입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상 '유보통합 재정·재산 분야'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재정·재산 분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을 안내하고 재정·재산 분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에 대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회의는 구체적으로 ▲유보통합 정책 추진 경과 ▲보육 재정·재산 체계 이해 ▲교육지원청 이관 준비사항 안내 등 담당자의 업무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인력 자원을 활용한 재정 기획팀(TF) 운영으로 보육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

도권교육청(경기·서울·인천)과 교육부가 함께하는 재산 기획팀(TF) 운영을 통해 재정 사항을 연구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유보통합 재정·재산기획팀 진행 상황 공유 등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와 지속적 소통해 지방관리체계 이관 준비를 위한 업무 추진 효과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김밥 한 줄에 담은 한국, 워싱턴 주 학생 마음 사로잡아

경기도교육청이 4일부터 6일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및 벨뷰 지역에서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함께 해외 학생들과의 문화적 공감과 상호 이

해를 위한 다양한 케이(K)-컬처 교류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내 교원과 행정요원 10명으로 구성된 교육문화교류사업 추진단이 주관했다. 2025 해외 교육·문화 교류사업의 주요 내용은 ▲여름 캠프(K-Summer Camp) ▲학생들과의 문화적 공감과 상호 이

교육원과 문화 체험 키트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현지 초등학교 80여 명에게 케이(K)-푸드와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한글학교 교원 대상 ▲한국 음식 수업 가이드 ▲퓨전 한식 시연 및 교수법 소개 ▲한국어 수업방안 ▲한국어 기본 교재 활용과 학습 설계 등 교원연수도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3,340만 원 기탁... 이재민 지원

##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피해지역 복구에 쓰여

안산시는 13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3,340만 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미래연구원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상공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등 13개 산하기관·단체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

이번에 모인 기부금은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생계 지원과 피해시설 복

구, 긴급구호 물품 구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안산시와 관련 기관들의 연대와 나눔의 실천에 감사드리다”며 “피해 주민들의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민근 시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 시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지역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기부 외에도 재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민근 시장(왼쪽)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산하기관·단체가 함께 모금한 성금 3,340만 원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 안산시평생학습관, 상호문화 평생학습 우수사례 홍보 시행

### 13일 사업설명회도 가져

안산시평생학습관(신영철 관장)이 13일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 박영훈 의원, 한국사회경제학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 평생학습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학습관 리사는 2021년 전국 평생학습관 최초로 개설된 교육부 승인 민간 자격등록증(제2021-003842호)으로, 2021년 1기 양성을 시작으로

충형 한국어 학습과 정서적 지지가 기반이 되는 이주 선배로서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안산시 다문화학습관리사를 주제로 추진배경, 자격 프로세스, 운영현황, 앞으로의 비전, 상호질의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다문화학습관리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정미 위원장은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라고 전하면서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과정부터 자격 프로세스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

##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

### 최우수상 ‘강동하’ 외 2명 제안 도로 위험 분석 관리자 페이지 구축 아이디어가 차지해

안산시는 13일 상록구청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평가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4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날 발표평가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명단에 오른 5팀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강동하’ 외 2명이 제안한 ▲도로 위험 분석 관리자 페이지 구축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PM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13일 상록구청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석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데이터를 활용, 사고 다량 발생 지역을 특정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페이지 구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수상에는 ▲안산시 무장애 이동 환경 조성 전략 ▲수요 최적화 버스 노선 제안 아이디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DRT 도입 확대 방안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제안 아이디어가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하 외 2인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민들의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 안산시, 8월 22~23일 소소플래닛 다농에서 맥주 페스티벌 열린다

안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소소플래닛 다농(상록구 예술광장로 1)’에서 고객 감사축제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소플래닛은 ‘소소한 일상이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의 안산시 청년몰 명칭이다. 시에서 청년창업 기회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농마트와 신안코아 전통시장 내 40여 개 공실을 매입해 청년 상인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맥주 페스티벌은 소소플래닛 다농 청년상인들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평생학습관이 13일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 박영훈 의원, 한국사회경제학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 평생학습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2025년 현재 100여명의 다문화학습관리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학습관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경찰서, 이주노동자 쉼터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생애주기별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

어 안산시 다문화학습관리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신영철 관장은 “오늘 사업설명회를 통해 부평구의회에서도 좋은 기회가 되어 다문화 혹은 상호문화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이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이 부평구에 깃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도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일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첫번째 저널 트레킹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8시 출발 (오전 7시 50분까지 집결)
- 장소 : 트레킹 장소 (강원도 철원 소이산 둘레길 등)
-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 모집 마감일 : 9월 3일까지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보험, 레일바이크 탑승료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8회] 대남초등학교 총각 선생님 사택 학교 용지에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건립(상)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19년 3월 5일(화) 박명훈 전 의원과 이균희 지회장 외 대부도 지역인사, 안산의 음악인이 섬마을선생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후 4월 10일(수) 노래 배경지 포럼 개최, 5월 31일(금)부터 3일간 선감도의 경기도평생대학에서 섬색시·총각선생님·섬마을 가수 선발대회와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건립 계획도 세웠으나 코로나 19와 여건 미비 등으로 섬마을 선생님 관련 행사가 추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생활음악협회 이균희 안산시회장이 이미지 선생님 팬카페 나미주 회장과 만남을 추진하였다. 2020년 2월 14일(금) 이균희 지회장과 대남초 김선철 전 교장이 부평 백운역 근처 거궁에서 나미주 회장을 만나 식사와 차를 마시며 안산 대부도 대남초등학교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라는 것을 밝힌 전후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렸더니 “이미지 선생님 팬카페에 글을 직접 올려 공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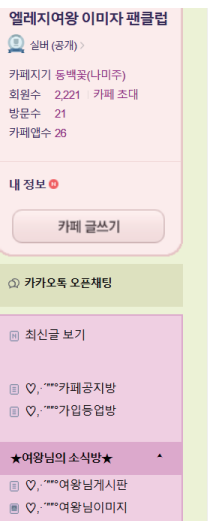


대남초등학교 총각선생님 사택과 섬마을선생님 노래비 건립 장소

고” 하였다.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조사 보고서, 포럼 자료, 신문 기사 등의 스캔 파일을 “이미지 선생님께 전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2020년 2월부터 이미지 선생님 팬카페에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관련 대부도 대남초등학교와 지역사회 자료를 수집 건 올려 공문화시켰다.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에 주민의 정성을 모아 노래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제막식 관련 소식도 올렸다.

이러한 안산 지역 음악인과 많은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에 대한 별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대부도 대남초등학교가 노래 배경지인 것이 잊혀 질 것만 같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래비를 꼭 세워야 한다고 결심하였



동심촌(김선철)이 2020년 2월, 이미지 선생님 팬카페에 처음 올린 글

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남초등학교 동창회와 지역 유관 단체, 음악인, 유지(有志) 등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2020년 5월 14일(목) 대부도에코뮤지엄센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들의 조언을 들은 후, 대부도 주민들의 협조 방안을 협의하였다. 4회에 걸친 회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노래비 건립을 위하여 2020년 6월 26일 ~ 8월 10일까지 1개월 반 동안 모금하기로 하였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 조기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모금 내역은 대부도 직능 단체와 주민이 1,110만원, 대남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140만원, 총 2,150만 원이 모금되었다. 모금액으로 노래비 건립 1,450만원, 앰프 설치비 230만원, 제막 행사

비 170만원, 기타 행사 경비 3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노래비 건립 장소는 대남초등학교 총각 선생님의 사택 2동이 있었던 대부동 산 284-5번지에 건립하고 노래비 앞면에는 노랫말, 뒷면에는 총각 선생님과 섬색시 그리고 작사자 일행이 소금 뿔배를 타고 온 사연, 옆면에는 조각 그림과 건립비 모금 협조 단체명 및 개인명을 새기도록 하였다.

노래비의 전면에는 장르별로 ① 노래의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지 노래 발표는 1965년, ② 중앙에는 노래 가사 1절과 2절, ③ 이경재 연출의 서울중앙방송국 섬마을 선생님 라디오 드라마 주제는 1966년, ④ 김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 영화 주제곡은 1967년임을 새겨 1965년에 발표

|     |                                                   |          |          |
|-----|---------------------------------------------------|----------|----------|
| 23회 | 만 65세이상 받을 수 있는 혜택들                               | 동백꽃(나미주) | 24.12.17 |
| 22회 | 이미지-섬마을 노래, 일본서 사상 첫 '명동 공연'                      | 동백꽃(나미주) | 24.12.11 |
| 21회 | 가수 이미지                                            | 동백꽃(나미주) | 23.11.20 |
| 8   | 섬마을선생님 노래 배경지에 해당화 향기길 조성을 위해 해당화꽃 4월 6일 심었네요     | 동심촌      | 20.04.17 |
| 7   | Re: 섬마을선생님 노래 배경지에 해당화 향기길 조성을 위해 해당화꽃 4월 6일 심었네요 | 동심촌      | 20.04.17 |
| 6   | 섬마을선생님의 배경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대남국민(초등)학교 앞편            | 동심촌      | 20.02.15 |
| 5   | 대남학교에서 열린 "섬마을선생님 음악회" 사진입니다                      | 동심촌      | 20.02.18 |
| 4   | 1960~70년대 "섬마을선생님" 배경지 대남학교 학구도, 연혁, 사진           | 동심촌      | 20.02.17 |
| 3   | 섬마을선생님의 배경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대남국민(초등)학교 앞편 옛지도        | 동심촌      | 20.02.16 |
| 2   | 1960년대 대부도 대남학교 학구내 섬색시와 결혼한 세 분의 대남학교 총각 선생님의 용인 | 동심촌      | 20.02.16 |
| 1   | 대부도 "섬마을선생님" 배경지 근처에 살아요                          | 동심촌      | 20.02.15 |

### 데스크 칼럼

## 대부도 개발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길을 묻다



김태창  
편집국장

목표로 생활 기반 확충과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점진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 중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의견은 분명하다.

보전 지역은 철저히 보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생태와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이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뚜렷하다. 시 재정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 민간투자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성장관리계획은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할 도시정책의 방향이다.

안산시의회는 생태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잡힌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좌우할 것이다.

개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보존은 제약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번 논의가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대부도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된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곡이 된 것을 강조한다. 노래비의 뒷면은 2010년 4월 6일 KBS 사극 ‘용의 눈물’ 김재형 PD님이 고갯부리횃집에서 과거에 많았던 해당화를 대남초등학교에 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속의 총각 선생님은 그 학교 선생님이

고 노래의 배경지라 증언한 것. 김재형과 이경재 PD 일행은 마포에서 이구영 선장의 소금 뿔배를 타고 긴장 불이 해안의 해당화 군락지와 옆전으로 온 것, 대부도 해당화 군락과 철새 이야기, 총각 선생님 세 분이 섬 색시와 결혼한 사연 등을 새기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는데 선뜻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